

# '걷고 싶은 나주'...역사문화생태 특화거리 조성 나선다

### 전남도 공모 선정 5억원 확보...나주향교·나주천 물길 연계 사업비 10억원 투입...특화쉼터·돌담·경관조명 설치 추진

나주시가 유구한 역사·문화자원과 생태 경관을 아우르는 특화 거리를 조성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도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을 통해 아름답고 매력 있는 거리, 쾌적한 보행 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시는 나주읍성 문화유산과 나주천 생태물길 복

원, 국가 유산 경관개선 등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역사와 문화, 생태 자원, 주민 생활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특화거리 조성에 나선다.

조선시대 객사, 지방 공궤 기능을 했던 금성관과 전국 최대 규모 향교 건물인 나주향교, 나주목사내야 등 문화유산, 나주천 생태물길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특화 디자인을 발굴해 공공시설물과 주민 편의시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읍성 따라 피어나는 하화담길"을 테마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특화쉼터, 능소화 터

널 및 돌담, 경관조명 설치와 보행로 및 간판 정비, 가로등·벤치·승강장·안내표지판 등 공공 편의·휴게 시설물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주민, 전문가 협의체 등을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기본 실시 설계를 거쳐 올해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천 생태물길, 나주읍성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역사적 고유성과 상징성, 정체성을 담은 차별화된 천변 특화 거리를 조성, 걷고 싶은 나주를 완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500만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임신부들이 '자유부인 힐링타임'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 담양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가동...하루 재활용품 10t 처리

### 자동화설비 갖춰 분류공정 개선

담양군이 지난해 12월 준공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운영 관리업체 계약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위치하며 지상 1층, 연면적 1578㎡ 규모에 1일 10t의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46억 원이다. 국비 14억원, 도비 5억원, 군비 27억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회수센터는 발리스틱 선별기와 광학선별기 등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어 기존 수작업 위주의 재활용 분류 공정을 크게 개선했다. 자동화 선별을 거친 재활용품은 압축·계량 후 반출돼 작업 과정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센터 내에는 샤워시설, 탈의실, 휴게실 등을 갖춰 근로자 편의도 한층 강화했다. 운영인력은 기존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 6명을 고용 승계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 총 16명 규모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자동화 선별시설 도입을 통해



가동에 들어간 담양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효율도 개선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 문학감성 키우고 마음건강 치유 받으세요

### 장흥군 노벨 성장 프로젝트 사업 9월까지 임신부 등 4개 프로그램

장흥군이 오는 9월까지 임신부와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마음치유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 등 2곳에서 열린다.

'아이가 자란다! 장흥이 잘한다!'를 모토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태교부터 육아까지 문학감성과 마음건강 치유를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임신과 출산가정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성문학과 마음치유를 통한 '자유부인 힐링타임' ▲감성을 담은 동

화와 융합한 '오감 놀이터' ▲임신기 정서적 안정과 문학 감성 태교를 위한 '노벨맘 힐링테라피' ▲문학과 놀이를 접목해 다문화 임신부가정을 위한 '다함께 다정한 문학육아' 등 4가지로 구성했다.

군은 노벨 성장 프로젝트 사업과 함께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임신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와 영유아 건강 체크, 수유와 양육 교육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며 "출산 가정 부모들이 사회적·정서적으로 지지받는 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화순군, 복숭아 적과·붕지씨우기 철저히 당부

### 5월 중·하순경 적기...수확량 고려해 적절한 착과 수 유지 중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지역 농가의 복숭아 적과 작업을 돕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복숭아 재배 농가에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적과(알 솎기)와 붕지씨우기 작업을 철저히 시행달라고 당부했다.

복숭아 적과 작업은 착과 과다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과실 간의 영양 경쟁을 완화해 품질을 높이는 핵심 과정이다. 적과는 만개 후 약 40일, 즉 5월 중·하순경이 적기로, 수확량과 품질 균형을 고려해 적절한 착과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과 이후에는 붕지씨우기를 통해 탄저병, 심식나방 등 병해충 피해와 일소(햇빛에 의한 과실 손상)를 예방해야 한다. 효과적인 붕지씨우기를 위해서는 방제약제를 살포한 후 3-5일 경과한 맑은 날에 작업하는 것이 좋다.

군은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는 소형 붕지는 과실이 자라는 과정에서 찢어지거나 타일 위험이 커서 8절지 이상 크기의 붕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화순군은 현재 복숭아 품질 향상을 위한 3개 사업(4.6ha)을 추진 중이며, '이상기상 대응 복숭아 품종 다양화 시범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25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류장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복숭아의 품질은 적과 적과와 붕지씨우기 실천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라며 "과실 크기, 기상 여건, 병해충 방제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업에 나서달라"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에 들어선 소규모 야외공연장.

##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수변테크 공연장 탈바꿈

### 버스킹 전용 연중 공연 가능

나주시가 혁신도시 빛가람호수공원 내 활용도가 낮은 수변테크를 연중 공연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나주시는 빛가람호수공원 내 유휴 수변테크를 정비해 약 232㎡ 규모의 공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연중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 공연장은 버스킹(길거리공연) 전용 무대로 제공된다. 간이 무대를 비롯해 조명 시설, 관람석 등을 갖춘 가운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무엇보다 로데오거리와 상가 밀집 지역 맞은편에 위치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그간 제기된 호수공원 공연장 부족 문제 해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각종 동아리 모임 활성화로 시민 문화 여가 생활 향상도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에 조성한 소규모 야외 공연장은 기존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과 배매산 전망대 등과 연계해 통해 시민들의 여가문화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화순군 "맹견사육허가 받으세요"

### 9월 이후 벌금...시행 적극 홍보

화순군이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제도의 조기 정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맹견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사·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스태퍼드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기질 평가 결과 사·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이다.

현재 제도기간인 만큼 구비서류 및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9월 말까지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희남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허가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 장성군, 공약 이행 평가 또 'A'

### 민선 8기 3년 연속 우수 등급 주민소통·일치도 등 평가 83점

장성군이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장성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 '에이(A)'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web)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장성군은 분야별 평가에서 총점 83점 이상을

달성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효도권 증액·사용처 확대', '8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장애인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소년 상담 지원', '초·중·고생 입학축하금 지원' 공약 등을 완료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 이행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장성군은 분기별 공약 이행 점검 결과를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공약은 장성 발전의 청사진이자 설계도"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약 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함평군, '만원세컨하우스' 사업 참여자 모집

### 리모델링 등 최대 7천만원 지원

함평군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

함평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후 이동식 주택 설치를 지원하는 '만원 세컨하우스 사업'에 참

여할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이동식 주택을 설치한 뒤 7년간 군에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추진된다.

지원 항목은 ▲주택 개·보수(창호, 도배, 장판, 방수 등) ▲이동식 주택 구입 및 설치 등이며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 함평군,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

함평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5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에서는 ▲식품안전 제도 운영 ▲기초 위생

관리 ▲우수사례 등 13개 지표를 심사해 시도 5곳, 시군구 16곳 등 총 21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함평군은 매일 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식품을 수거·검사해 위해 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식품 안전성을 높여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